

포스터 I-13

제 목	국 문	일부 초·중·고등학교 여학생의 비만정도 및 체중조절 행태		
	영 문	Obesity Status and Weight Control Behaviors of Some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 Girls		
저 자 및 소속	국 문	박종, 안현옥, 이철갑, 류소연, 김기순, 김양옥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영 문	J Park, HO Ahn, CG Lee, SY Ryu, KS Kim, YO Kim Dept. of Prev. Med. College of Medicine, Chosun University		
분 야	역학	발 표 자	박종	
발표 형식	포스터	발표 시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p>1. 연구 목적</p> <p>최근 비만 유병율이 증가하고, 본인의 체형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과 다이어트 식품 등의 범람으로 인해 무분별한 체중조절이 시도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일부 여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비만실태와 체형에 대한 인식 및 실제 비만 정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비만도에 따른 체중조절행위와 그 문제점을 규명하여 바람직한 비만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p> <p>2. 연구 방법</p> <p>여자 초·중·고등학생 1,727명을 대상으로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여 비만도를 계산하고, 일반적 특성, 비만의 실태와 관련된 항목, 자신의 체형인식에 대한 항목 그리고 “규칙적 운동 여부” “식사를 굶는지의 여부” 등의 9개 체중조절방법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 분석하였다.</p>				

3. 연구결과

1. 비만도에 따른 비만율은 초등학생 10.6%, 중학생 6.3%, 고등학생 6.7%였으며, 체형인식에 따른 비만율은 초등학생 25.0%, 중학생 38.9%, 고등학생 42.8%였다.

2. 비만도와 체형인식간의 일치도는 초등학생 57.0%, 중학생 31.3%, 고등학생 42.4%였다. 야원 학생 가운데 자신이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33.1%였다.

3. 전체 학생중 체중조절을 시행한 경우는 43.8%였고, 체중조절 시행방법 중 많이 시행하는 종류는 규칙적 운동(25.1%), 식사량을 줄임(19.6%), 간식을 먹지 않음(18.0%) 등의 순이었다. 체중조절을 시행해본 학생의 1인당 평균 시행 종류수는 2.7가지였다.

4. 비만도를 기준으로 야원 학생들의 체중조절행위 시행율은 초등학생 30.4%, 중학생 40.4%, 고등학생 39.6%였다.

5. 비만도에 따른 체중조절행위와의 관련성을 보면, 초등학생은 식사를 굵음, 식사량을 줄임, 규칙적 운동, 간식을 먹지 않음, 기름진 음식을 피함, 다이어트 식품을 복용함 등이었다($P < 0.05$). 중학생에서는 식사를 굵음, 식사량을 줄임 등이었고, 고등학생은 식사를 굵음, 식사량을 줄임, 규칙적 운동, 간식을 먹지 않음, 살빼는 약을 복용함 등이었으며 비만도가 증가할수록 시행율이 증가하였다($P < 0.05$).

4. 고찰

많은 여자 초·중·고등학생들은 자신의 체형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채 무분별하게 체중조절을 시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보건교육과 비만관리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